

명절 앞두고 '상생·협치로 민생 챙기기'

전북자치도-시군 제4회 부단체장 회의 개최... 물가 안정대책 등 정책·현안사항 등 공유하고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4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관리 추진, 코로나19 감염 취약 시설 집단발생 관리 강화, 전가차 화재 종합 안전대책 수립, 시군 늘봄학교 연계·협력 요청 등 도-시·군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체감물가 인하를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시군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별 합동 전담 대응팀 구성 및

상시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가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 확산과 관련해서도 시군별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가차 화재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추진과제 추가 발굴, 지상 이전 수요조사, 시설 점검, 홍보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2학기 도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14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2학기부터는 413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공공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시군별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연계·협력 모델 발굴을 당부 했다.

도내 외국인 지역 정착과 사회 통합 등을 위해 시군별 외국인 지원 총괄 부서와 외국인지원센터 지정 등 정착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모든 시군이 외국인 지원 총괄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2개월도 남지 않은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에 시군별로 특색 있는 홍보 부스 및 직거래장터 운영,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후보자 추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조례 일부개정 사항 대응 등 22건의 협조 사항을 시군에 전달했다.

시·군에서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 공모사업 선정, 국립 수중 고고학센터 건립 사업, 동부 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증제도 개선, 외국인 유입 및 정착지원 관련 법 및 사업 개정,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옥정호 순환도로(지717호) 개설 사업, 봉황~계화 간 지방도(706호선) 확·포장 사업 등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도와 대응 방

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전주페스타 2024,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정읍 구절초 축제, 감제 지평선 축제, 진안 홍삼 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 장수 한우랑 사과 축제, 임실N치즈축제, 고창 모양성제, 부안 문화유산 야행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홍보에 적극 협조해 지역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시군 간 부단체장 회의는 도-시·군 간 정책과 현안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며,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은 적극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전북대병원 방문·비상진료체계 점검

의료공백 상황속에서도 환자들 결 지키는 의료진들 노고 격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상급병원을 찾아 응급의료·코로나19 대응 등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전북자치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3일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 등을 만나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에 대해 공유했다.

유 병원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진 이달에 따른 응급·중증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코로나19 유행 대응책과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황 국장은 "현재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유행까지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전북대학교병원원 지역의 중증·응급환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인 만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공백 장기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중증·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환자 이송과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점검하



전북자치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3일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북대학교병원장 등을 만나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비상 진료체계 상황 등에 대해 공유했다.

고 코로나19 등 감염병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감염병관리센터 운영상황도 살펴봤다.

현재 전북대병원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272억 원(국비 131, 도비 10, 자부담 131)을 투입, 25실 51병상 규모의 감염관리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함께 만들 것"

김관영 도지사, 한국노총 전북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노동에 대한 가치증진·노사민정 화합 기틀 다지는 계기 마련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23일 한국노총 전북본부 제64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국노총 전북본부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전북자치도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 권기봉)는 23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동영 국회의원, 이성운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대의원대회는 한국노총 전북본부의 대의원들이 모여 전년도 사업 결산보고와 금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자리로, 노동조합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대회는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노동기 입상, 노동의례, 모범조합원 표창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의 미래 방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어려



지난 23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북본부 제64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운 시기에도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한국노총 전북본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중지성성(衆志成城)의 의미처럼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노동

자를 위한 한국노총 전북본부의 노력과 헌신이 빛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손잡고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회에 참석한 모범조합원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961년 대한노총전북도협회의 출범한 이후,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노동조합이다. 노사 화합 문화 조성, 근로조건 개선, 무료 노동 법률 상담, 취약 근로자 교육·법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권기봉 의장(제26대)이 이끌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 관련기관, 용담호 녹조 저감 '총력'

전북자치도는 용담호의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도는 지난 23일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 3분기 간담회를 열어 각 기관의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발령 상황을 공유하고, 녹조의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북지방환경청, 진안·무주·장수군 등 관계 시군과 유관기관, 전문가, 민간 단체가 참석해 장마철 폭우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용담호 녹조 문제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조류 경보제 운영과 녹조 현황 분석, 전북자치도와 관련 시군은 오염원 합동 지도점검과 정화 활동,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쓰레기 제거와 모니터링을 각각 맡아 녹조 저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9월에는 하천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을 선정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미처리 야적 퇴비를 제거하고, 하천 정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산악관광활성화 정책 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도내 14개 시·군과 관련 기관, 산악관광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만의 차별화된 산악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산악관광진흥 지구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도시연구소 한울의 서중주 소장이

'전북형 산악 관광진흥 지구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전북 내 산악 관광진흥 지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표준모델을 제시하며, 산악관광 인프라 확대와 콘텐츠 개발을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전북자치도는 '전북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산악관광 인프라를 비롯한 전북형 산악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24-8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2030.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제726호선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일원	연장: 2.5km 폭원: 9.0m (확포장2차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한산구 호자로 2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지방도726호선 중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2.5km) 구간으로 지방도 단선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개제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및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 기간: 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장소: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제출(열람장소 의견서 비치)
- 기타 문의사항: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63-350-2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권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문지한 주소나 거주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 공고를 갈음함.

2024년 8월 14일 장수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